

요양병원 옴 확산...쉬쉬하느라 예방 소홀

후진국성 질환 노인들 고통...요양보호사까지 감염 등 집단발병 우려 광주 환자 급증...법정전염병 아닌 탓에 지자체 현황 파악조차 안해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80대 환자 A씨는 최근 옴 질환에 걸려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옴 진드기가 온몸을 파고들면서 몸 이곳저곳 안 가려운 곳이 없지만, 스스로 거동조차 힘든 탓에 밤새 가려움을 참아내고 있다. A씨는 "갑자기 옴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려움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B(여·69)씨는 환자를 통해 옴 질환에 걸린 케이스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가려움증 등 옴 증상이 나타나 병원도 그만둔 채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많은 사람들이 옴을 사라진 감염병으로 알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원 특성상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경우 감염되기 쉽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사들도 무방비상태로 관리하다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씨는 "옴에 걸린 환자는 분리시켜야 하지만, 시설 여건상 목욕만 시킨 뒤 치료 연고를 바르고 끝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일이 쌓이고 환자들이 많을 경우엔 수건 한장으로 여러 명의 몸을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집단 감염이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노인 요양병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후진국성 감염 피부질환인 옴 질환이 번지고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들 사이에 감염성이 매우 강한 옴 질환이 확산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가려움증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해당 병원·시설들은 감염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병원과 시설을 오고가는 간병인은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옴에 감염되는 바람에 타 시설로 전염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자칫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등에게 옮겨질 경우 집단 발병의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광주시와 자치단체들은 옴이 법정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여력 부족 현상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광주의 요양병원 수는 64개에 이른다. 특히 광주에 수많은 요양병원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가격 할인 등에 따른 관리의 질 저하와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한 옴 환자 등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우려해 해당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외과빅데이터에 따르면 광주의 옴 진료환자는 2015년 2457명, 2016년 2625명, 2017년 2623명로 한해 평균 2000여 명이상이 병원을 찾

고 있다.

광주지역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에서 운영중인 피부과는 30여 곳으로 한달 평균 100여 명이 넘는 옴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광주 모 피부과 A원장은 "최근 옴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 대부분 요양병원 환자 또는 요양병원 근무자"라면서 "옴이 심각한 감염병 질환임에도 법정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옴 질환 발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최근 수년동안 발생한 옴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감염으로,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또는 옷, 침구, 수건 등을 접촉할 때 옮긴다. 옴에 감염되면 붉은 발진과 함께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치료를 받더라도 최장 1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5·18 왜곡' 지만원 2심도 패소

법원 "북한군 배후설 블로그 글 삭제 조치 정당"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이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원고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1심 결론이 옳다고 봤다.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튜브 통해 마약 구매 광주북부경찰, 3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운 전모(28)씨 등 남여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전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3일 유튜브 브 마약 판매 동영상을 통해 알게된 판매자와 SNS(텔레그램)로 연락한 뒤 현금 150만원을 주고 대마 5g을 구매해 같은달 15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에서 흡입한 혐의다.

박모(28)씨와 정모(여·25)씨도 같은 판매자에게 각각 13만원과 8만원을 주고 대마 1g을 구매해 서울 등 각자의 주거지에서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판매자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차로 신호 위반 교통사고 11일 오후 1시5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금호갤러리 303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A(여·72)씨의 레이 차량이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인 B(여·36)씨의 투싼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서부경찰 제공>

고수익 미끼 투자자 속여 12억 가로채

사기 혐의 40대 구속기소

외환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웅)는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유사금융업체 대표로 활동하며 "FX마진거래 환차익으로 매일 연리 10~20%의 이익금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속여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4명에게 12억4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암에 거주해온 A씨는 경북 포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1구좌(1100만원)당 월 8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FX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며 국내에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업계 1인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속아 많은 돈을 투자했다. A(41)씨는 현재 또 다른 FX마진거래로 81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주부들로, 가정이 파탄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서 트럭 충돌 2명 사망

11일 오전 6시 50분께 고흥군 금산면 한삼거리에서 A(53)씨가 운전하던 덤พ์트럭과 B(74)씨가 몰던 1t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2명 모두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주강중 기자 gju@kwangju.co.kr

본인은 외제차 타면서...일용직 임금 상습체불 악덕업주 구속

상습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광양·진도 등 전국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진

행하면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6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인 명의로 5개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회사 명의로 역대 고급 외제차(벤츠 S500)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만 100명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임금 체불과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재범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면서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 번 연속 쌍둥이 출산...5천만명당 1.3명 꼴 '극히 이례적'

○광주의 한 부부가 이례적으로 자연임신을 통해 세 번 연속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

○고성진(42)씨와 진운순(38)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병원에서 이란성 쌍둥이인 딸 주희양(2.36kg), 아들 준희군(2.46kg)을 품에 안았다는 것.

○이들 부부는 2009년 아들(10) 쌍둥이와 4년 뒤인 2014년 딸·아들(5) 쌍

둥이를 출산한 데 이어 연속으로 세 번째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세 번 연속 낳을 확률은 5000만명당 1.3명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특히 남편 고씨는 임신예란 때 예적과 싸우다 전사한 고경명(1533-1592) 의병장의 후손으로, 고씨의 할아버지 세대에서 쌍둥이를 낳은 후 고씨가 3대째 쌍둥이 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북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업과 자신만의 콘텐츠, 영상 제작 기법 등의 수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미래사회의 준비된 나, 마음발전, 감정탐색, 1인 미디어 개론, 현역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영상기획, 촬영, 편집, 현장 견학 등	48시간	20명
- 모집기간 2019. 04. 08(월) ~ 2019. 04. 23(화)
- 교육기간 2019. 04. 24(수) ~ 2019. 08. 07(수)
- 교육시간 매주 수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우) 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